

남양주시-해군 다산정약용함 상호교류 협약 체결

김준구 기자 입력 2026. 1. 23. 06:36

해군 장병 대상 공공가치 교육 지원
시민 대상 부대 견학 및 안보 교육



주광덕(왼쪽) 남양주시장과 구본철 다산정약용함 함장이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산정약용 정신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 확산과 문화·안보 분야 협력에 나섰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김준구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해군 다산정약용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산정약용 정신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 확산과 문화·안보 분야 협력에 나섰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정약용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문화 교류 △공립 교육 △시민 참여형 안보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다산정약용함이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이라는 전국적 상징 플랫폼인 점에 주목해, 이를 통해 '다산 정약용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은 시민과 장병의 교류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필승해군'이라는 이미지를 활착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구본철 다산정약용함 함장을 비롯해 시와 해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다산 브랜드 자산 공동 활용 △민·군 교류 프로그램 운영 △해양·안보 교육 협력 등이 포함됐다.

해군 관계자들은 협약식 이후 정약용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다산 철학 특강 △궁집·정약용편 그라운드 탐방 △전통 다도 체험 등 '공립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정약용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군 장병 대상 공공가치 교육을 지원하고, 해군은 시민 대상 부대 견학 및 안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가능한 상호 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와 해군이 정약용이라는 이름 아래 만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게 돼 의미가 깊다"며 "시민과 장병 모두에게 뜻 깊은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정약용함은 2026년 12월 해군에 최종 인도될 예정이며, 시는 해당 시점에 맞춰 해군과의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준구 기자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